

작은 사랑

기증자 | 김갑중 님



하나님께 의탁하고, 준비하고 시작한 수술이었다. 남들은 대견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생각해본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고. 내가 기증을 안 해줬다면 기증자를 찾았다고 기뻐했을 아픈 사람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지. 내가 실천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의 실천은 주님의 선한 작은 사랑이라는 것을.

2003년 교회 여름행사를 준비할 때 즈음 해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입니다” 늦은 새벽잠에 든 나는 잠결에 무슨 광고인줄 알았다.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군입대전 백혈병으로 하늘나라에 간 한 어린아이를 생각하며 결정했던 조혈모세포기증신청이 생각났다. 만으로 3년 만이었다. 그때는 열정에 사로잡혀 내가

해야 할 무언가를 찾으려했는데... 생각할 시간을 부탁한 후 며칠간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모든 설명을 듣고 유전자형 확인검사를 위해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여름 행사가 끝날 갈때쯤 유전자형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제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수술 날짜만 잡으면 되는 것이었다. 부모님께 넌지시 운을 띄웠다. 아버지께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어 어머니께만 말씀 드렸는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런 말 할 거라면 집에서 나가라며 호통 치셨다. 난감했다. 그 후로 일주일 안에 연락을 주기로 하고서는 연락이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회피도 했다. 3주간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되기 시작했다. 불면증까지 찾아와 힘들게 했다.

기도 끝에 부모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측에서는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일에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며 다시 설득 권유하였지만, 부모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나는 나의 의사를 받아 들여 줄 것을 요청했고, 대신 사촌형님에게 도움을 청하여 수술일정을 맞추어 나갔다. 수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과 자가 헌혈을 해야 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 갑작스레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져 수술이 연기 되었다. 혹시 나의 늦은 결정 때문에 환자가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날짜가 잡혔다.

입원해서 몇 가지 항생제 테스트를 받았다. 정말 조금 밖에 안 넣었는데, 진짜 아팠다. 엉덩이 쪽은 면도도 하고, 관장도 했다. 아침에 소독약으로 온몸을 샤워하고, 다시 소독제를 바른 후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실에서 한 의사가 주사를 놓아주며 “잠시 뒤에 제가 누군지도 모를거예요”하면서 살짝 웃어주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나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며 ‘김갑중씨, 김갑중씨’라고 불렀다. 수술 후 1시간정도 회복실에 있다 병실로 돌아왔다.



병실로 돌아와 한 시간 뒤 점심식사가 나왔는데, 먹기 힘들었다. 움직이기 어려워 간병인 아주머니가 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데, 소화도 안 되고, 힘들고 먹기 어려웠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혈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말아야 했다. 활동적이다 못해 방정맞은 내가 그 긴 시간을 정말 꼼작 않고 누워 있었다. 정말 인내하고, 견디었다. 이것저것 먹고, 놀고, 저녁엔 아는 형이 오고, 허리가 बे기느낌 빼놓고는 안 아팠다.

수술다음날 아침에 의사선생님이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했고, 그날 오후 12시쯤 에 퇴원을 했다. 집에서는 눈치 못 챌 정도로 아무 증상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1~2주정도 통증을 호소 한다는 것이 안 믿길 정도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준비하고 시작한 수술이었다. 남들은 대견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생각해본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고. 내가 기증을 안 해줬다면 기증자를 찾았다고 기뻐했을 아픈 사람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지. 내가 실천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의 실천은 주님의 선한 작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적 같은 일

기증자 | 정규호 님



조혈모세포기증은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의 잘못된 소문만을 듣고 이 작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병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의 망설임이 생명의 촛불을 끄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후 단체헌혈 시에 조혈모세포기증희망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대 후 방 송이나 잡지 등을 통해 기증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고 '나도 기증신청을 했는데 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나에게도 저런 일이 나타나길 내심 바라며 사는데...' 라고 생각하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기억조차 못 할 무렵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증의사를 묻는 코디네이터 선생님의 말에 마치 합격자 명단에 오를 것 마냥 기쁜 마음이 든 것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 좋다고 될 일은 아니었죠.

우선은 부모님과 집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다행히 집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해주었고, 문제는 부모님의 반대가 분명할 것이라는 점이었죠. 하지만 평생에 한번 해 볼지 모를 이런 기회를 보낼 수 없어서 저의 독단으로 기증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우선 유전자검사 및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사에서 기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2번의 자가헌혈을 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예정일이 잡혔고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무사히 기증을 했습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으나 마취에서 깨고 나니 병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채취부분에 모래주머니를 대고 긴 시간을 보내려니 정작 수술보다 이게 더 곤욕일 정도였죠.

예비 기증자분들이 가지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마취되고 깨어나 보면 두려움은커녕 '고작 이 정도구나.' 라는 사실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빼고는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자는 게 일이었죠.

마음속으로 수혜자에게 제 조혈모세포가 잘 생착되기를 바라며 다음날 퇴원을 했고,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후 1년이 되어 갈 무렵 협회에서 수혜자에



게 다시 한 번 기증을 할 수 있겠는지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2차 기증은 입원 없이 성분헌혈 하듯이 조혈세포만 추출을 하면 됐고,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추출시간이 3~4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만 빼면 말이죠. 하지만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가족 분들은 무려 1년의 시간을 기다린 걸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증을 마치고 나오며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 수혜자 가족들이 밝은 웃음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빌며 나를 건강하게 길러 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조혈모세포기증은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의 잘못된 소문만을 듣고 이 작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병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의 망설임이 생명의 촛불을 끄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증자 | 조혜련 님



저는 제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환자분들의 힘든 상황을 듣게 되면서, 또 잘못된 상식으로 기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기증을 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무관심의 벽만 허물어 주세요.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이 있지요. 저도 백혈병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딱한 사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백혈병 환우회라는 모임에 접하고, 홈페이지에 가입했더니 매달 소식지가 배달되더군요.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환자분들의 소식을 들으니,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고 이 분들을 위해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새 마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헌혈을 하려고 헌혈의 집에 갔는데, 또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던 조혈모세포기증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헌혈을 3번 이상 하신 분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증신청자 분들의 번복이 많으니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안전책이었던 것이

죠. 그래도 저는 건강했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기증을 하고 싶었기에 직접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협회를 찾아가 기증신청을 했습니다.

일치자를 찾았다고 연락이 온 것은, 기증신청을 한 지 두 달 만이었습니다. 보통 수년이 흘러도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바로 유효순 코디네이터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기증의사를 말씀드렸더니, 가족과 상의하고 신중히 결정하라 하시더군요. 가족의 반대로 기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군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수술이라는 말에 걱정을 하셨지만 잘 설명을 드리니 곧 기도로 도와주셨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에 도움을 주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자가 헌혈을 하면서 길게만 느껴졌던 세 달이 지나가고, 드디어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가서 나정화 코디네이터선생님을 만나 난생 처음 입원 이란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1인실을 배정받았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이렇게 좋은 병실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환자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연 코디네이터선생님께서 일찍부터 오셔서 수술준비를 도와주시고,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검진 때보다 혈색이 좋아졌다고 하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꾸준히 먹은 철분제가 효력을 발휘했나봅니다. 산소마스크를 씌워주셔서 심호흡을 했더니 “끝났어요.”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이미 회복실이었습니다. 처음 깨서는 출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취가 깨면서 괜찬아졌습니다.

병실에 올라와서도 지혈 때문에 몇 시간을 같은 자세로 누워있어야 하는 것 말고는 힘든 것은 없었고, 저녁에는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빨랐습니다. 퇴원하고 주말에 신 후에 학교 가는 길에 전철을 탔을 때 울렁거림은 있었는데, 그 후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이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주신 의사선생님들과 일정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불편한 것 없도록 도와주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돌봐주신 엄마, 찾아온 친구들, 그리고 이런 값진 일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환자분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조혈모세포를 가



져가시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제 또래라는 그 친구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환자분들의 힘든 상황을 듣게 되면서, 또 잘못된 상식으로 기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기증을 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무관심의 벽만 허물어 주세요.

흐뭇해집니다

기증자 | 최준호 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기증이나 기부 문화가 발달할수록 이 사회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협회 소식지를 통해 기증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아직 이 사회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흐뭇해 집니다. 두서없이 쓴 글 같아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이 글을 통해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하여 다소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는 분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 느닷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증을 위해 병원에 입원 할 때, 서른을 훌쩍 넘긴 아들인데도 부모님께서서는 한 사코 동행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막내였기에 그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교회에서 기증신청을 할 때에는 솔직히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었었기에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나 작년 3월 협회 코디네이터 분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내심 놀람기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기증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가족 및 주변 분들을 설득하는데 조금 애를 먹기도 했지만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상반기 휴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허락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직장 같은 조직 문화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한창 활동할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에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계를 내고 기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 세간에 많은 오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연코 "그렇지 않다." 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 생성되는 것이 조혈모세포이고, 누군가가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여 한 생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기꺼이 응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알고 있는 수술 방법(엥덩이뼈에서 주사기로 채취)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기증했습니다. 성분헌혈하듯이 혈액



을 먼저 빼내어 조혈모세포만 추출 후 다시 나머지 혈액은 몸 안으로 넣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혀 통증도 없고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소 소요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3박 4일 동안의 기증이 끝난 후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당시 코디네이터선생님과 메일로 연락을 주고받곤 합니다. 기증을 받으신 환자분 안부도 묻곤 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에 새삼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기증이나 기부 문화가 발달할수록 이 사회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협회 소식을 통해 기증자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아직 이 사회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흐뭇해집니다. 두서없이 쓴 글 같아 부끄러울 따름이지만 이 글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분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협회 모든 분들, 그리고 제가 기증할 때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셨던 이향미 코디네이터선생님, 또 다른 코디네이터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기증자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